

여수세계섬박람회, 해외 관광객 유치 총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9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카리브해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인호텔에서 미주 여행사·언론사를 대상으로 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형근 조직위 기획본부장과 문장숙 전남도 미주사무소장을 비롯해 소니 트래블&투어, 포라 트래블, 핀타스 터카 트래블즈 등 여행사와 미국 현지 국내 언론사,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LA지사 관계자 등 17개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조 본부장은 여행사를 대상

내달 2일까지 미국·카리브해 설명회·홍보 활동 크루즈·여수공항 부정기편 등 2만명 이상 기대

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하고, 섬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객 활동, 홍보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하와이 주정부 상무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하와이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 3월 2일까지 카리브해 지역으로 일정을 확대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참

가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현재 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한 국가와 국제기구 28개국, 이번 미주 방문을 통해 목표인 30개국 유치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치 목표 관광객 9만명 중 2만2천명 이상의 해외관광객이 국제 크루즈와 여수공항 국제선을 통해 방문할 예정이다.

섬박람회 기간 중 로얄캐러비언호, 홀랜드 아메리카호, 미즈이오션후지호 등 10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인호텔에서 미주 여행사·언론사를 대상으로 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의 국제크루즈가 임할 예정이며, 베트남, 중국, 몽골을 오가는 국제선 8회(16편)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 등 수용 태세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K-POP 열기 등 한류열풍에 힘입어 미주 지역은 방한 관광 수요가 높은 전략시장인 만큼, 현지 여행업계·언론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섬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와 미래를 조명하는 세계 최초 섬 주제 국제 박람회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란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도지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정림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구례, 시화산 방지 행정력 집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역

구례군은 최근 윙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되자 김순호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 대응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항원 검출 보고를 받은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6개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지시했다.

김 군수는 AI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가용 자원의 총동원과 선제적 차단 조치를 주문했다.

군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기금 농가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 방제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소독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도 축사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광양시는 오는 27일 마동 1301번지 일원에서 '해비치로 달빛해변'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서 사계절 휴식 즐겨요"

27일 개장·공연·체험·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출발

광양시는 오는 27일 마동 1301번지 일원에서 '해비치로 달빛해변'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약 1만5000㎡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151면 규모의 주차장, 버스킹 무대 4개소, 푸드트럭존, 화장실 1개소, 야자수와 잔디가 어우러진 녹지공간, 그늘쉼터 6개소, 통나무의자 2개소 등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해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개장식에는 정인화 시장, 전남도

의원, 광양시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개장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LED 버튼을 활용한 개장 선언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해비치로 달빛해변'의 공식 개장을 알릴 예정이다.

식전공연에는 지역 청소년 댄스팀과 오키나와 연주팀, 플루티스트 서가비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개장식 이후에는 버스킹 공연 3팀의 무대가 이어지며, 푸드트럭 시식 행사와 플라멩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

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함,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둘째·넷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이 시민의 일상 속 휴식처이자 광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개장식에 앞서 현수막 게시, 언론 보도, SNS 홍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교통·위생·안전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순천,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지원

최대 500만원...장기 근속자 50만원 장려금 지급도

순천시가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과 장기 재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을 지원하는 '장기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고급리·고급가·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로 고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승리를 위한 지원에 총 2억 5000만원(수출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수출 확대 지원과 인력난 해소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확대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에 예상될 정도로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출항만 선적비 지원은 제조기업이 지출한 물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은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순천 시민에게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신청장산업과 산단개발팀(061-749-44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영 여건 악화로 수출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물류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관광택시로 지역 곳곳 여행하세요"

군, 대중교통 이용객·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고흥군이 운영하는 관광택시가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 맞춤형 관광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관광택시는 관광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전 문 기사와 함께 고흥의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서비스다.

특히 추천코스를 기반으로 하되 이용객이 희망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일정 구성이 가능하며, 관광지 관광 시간 동안 차량이 대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고흥관광택시는 분청문화박물관, 소록도, 니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속섬, 거금대

교 등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 목적과 체류 시간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3시간 기준 6만원이며, 시간 초과 시 30분당 1만원이 추가된다. 관람 대기시간은 이용 시간에 포함되며, 입장료·시설 이용료는 별도다. 예약은 고흥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관광택시는 관광객이 더 편리하게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연계 관광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관광객 중심의 교통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고흥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곡성물, '삼삼데이 특별전' 운영 33% 할인 축산물 소비 활성화

곡성군은 3월 3일 삼삼결례를 맞아 곡성물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삼삼데이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 축산농가의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과 곡성군의 추가 할인 지원을 결합해 최대 3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우, 흑돼지, 떡갈비, 유정란 등 총 27개 품목을 선보인다. 곡성물 내에는 전용 특별관을 마련해 소비자가 상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업체 또한 기존 고객과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판매 확대에 나선 예정이다.

삼삼데이 특별전은 지난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곡성물 회원에게는 1인 2매, 1매당 최대 5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축산물의 온라인 소비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물에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텍스트 리뷰 500원, 포토 리뷰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한 신규 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 상품 무료배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장흥, 농촌진흥시범사업 본격화

어르신 복지실천 등 22개 사업 추진

장흥군이 농촌진흥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농촌진흥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과 군 자체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작목별 대표 농가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기

과, 총 22개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정 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육성 시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마케팅 지원,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수요 맞춤형 정립종 배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 육성 시범,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 갑골 국산 신식품 저변 확대 기반 조성 시범 등 지역 여건과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지역 특화 소득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을 대폭 반영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기술 보급과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